

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the Effects of Regional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Case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이다운* · 서원석**

Lee, Da-Eun · Seo, Wonseok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on the intention to childbirth intention to married women using a panel logit model. To this end, this analysis targeted married women aged 25 to 39 who are highly likely to be fertil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power of spouse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hildbirth intention regardless of reg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marri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birth intention, and also higher the value that children must have, the higher the childbirth inten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willingness to childbirth intention, excluding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existing children. In particular, the burden on education spending in both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was found to be a key reason for the decrease in the childbirth intention. Lastly, the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showed different effects on childbirth intention on depending on the region. Specifically, in the capital region, medical spending and loans had a greater impact, while, in the non-capital reg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had a greater impact on childbirth intentions.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e implication that easing the burden on household expenditure is continuously necessary to enhance childbirth, and that discriminatory policy approach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area of residence.

Keywords: Childbirth Intention, Household Expenditure, Housing Burden, Low Fertility, Panel Binary Logit, Capital Region, Regional Economics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first author: goda4874@daum.net)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wseo@cau.ac.kr)

1. 서론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의 대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행정안전부(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도(2019년)보다 약 11% 감소한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2002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오던 출생아 40만명 선이 2017년 처음 무너졌으며,¹⁾ 2045년으로 예상되었던 27만 명 수준이 25년 앞선 2020년에 깨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주민등록인구 또한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 저출산 문제의 심화와 이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비혼, 만혼과 같은 인구학적 원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성 역할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원인, 고용, 주거 부담, 자녀 양육 부담 등과 같은 경제적 원인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윤정 2008; 천현숙 2013; 이다은·서원석 2019). 특히 경제적 원인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신윤정 2008; 박종서 2015). 실제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교육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통해 가구원이 증가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가구의 지출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기존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게 된다(차경옥 2005; 최홍철·유재언 2020). 이와 더불어 주거면적, 주거형태와 같은 주거공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다은·서원석 2021)도 증가하는 등 가계지출의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기존정책은 뚜렷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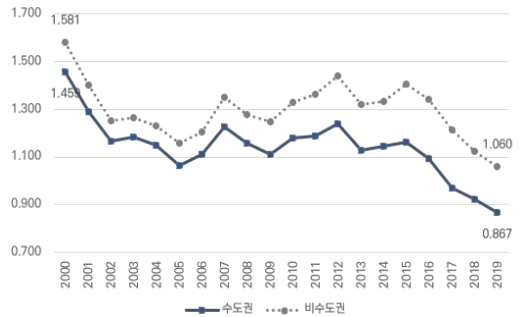


Figure 1. Comparison of the total fertility rates i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Source: KOSIS

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의사는 개인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경우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출산 의사에 있어 거주 지역에 대한 효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신인철 2009; 강현구 외 2014; 김은경·박신애 2019).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출산율, 소득·고용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 주택가격, 양육인프라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김은정 2016; 양혜선·서원석 2020)에서 두 지역을 구분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는 것은 세분화되고 미시적인 출산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산율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Figure 1 참조), 소득은 2020년 기준 수도권 6,412만원, 비수도권 5,286만원, 부채규모는 수도권 10,046만원, 비수도권 5,932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²⁾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에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3,4)} 양육의 인프라 및 지원서비스 시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김은정 2016).

이처럼 가계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부담과 출산과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교육비, 주거비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역별로 구분해 출산 의사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자료(2차~7차)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가계지출 부담항목과 출산 의사와의 관계를 패널로지모형(panel logit model)을 이용해 실증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토록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1. 출산 의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출산 의사는 가족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이자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으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출산에 있어 개인의 의사와 선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윤정 외 2020). 이러한 출산 의사 형성과 관련된 이론에는 가족경제학 이론, 차별출산력 이론,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 등이 있다.

먼저, 가족경제학 이론은 출산에 대한 전통적 의사결정 이론으로 개인이 출산 결정하는 데 있어 가구소득과 효용을 가지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드는 비용과 자녀가 주는 효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차경욱 2005). 자녀 관련 비용에는 양육비, 교육비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비용 외에 시간비용, 기회비용 등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는 주양육자로서 시간비용이 요구되며,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소득 등과 같은 기회비용도 발생하게 된다(서정연·김한곤 2015; 이지원 외 2019). 또한 이 이론에 따라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는 지출 비용의 양과 질의 대체가 이루어져, 소수의 자녀에게 많은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신윤정 외 2020).

차별출산력 이론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및 교육 수준 향상, 초혼연령 상승 등과 같은 변화로 인해 출산력 변화를 경험하였다(서정연·김한곤 2015). 이는 사회적 현상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출산은 자녀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소영 2008).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은 이전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사회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 자이실현, 삶의 질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설명한 이론이다(마미정 2008). 우리나라도 빠르게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서정연·김한곤 2015).

2.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기존 연구는 대체로 개인 특성, 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 만족도 및 가치관 등과 같은 요인들이 출산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 특성을 핵심 요인으로 간주한 연구의 경우 부부의 연령, 교육, 직업 등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 및 배우자(남성)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신혜원 외 2009; 서미정 2011; 이형민 2012; 정은희·최유석 2013; 김선숙·백학영 2014; 이승주 외 2017; 우해봉·장인수 2019).

반면에 경제활동은 여성과 남성 배우자 간 출산 의사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직업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7; 정미라 외 2013; 정은

희·최유석 2013; 이승주 외 2017). 하지만 배우자인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임시 및 일용직이나 무직보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등과 같이 경제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정석 2007; 신인철 2009; 송유진 2014).

주거안정성과 관련된 거주 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에 거주할수록 출산에 긍정적이었고(이삼식·최효진 2012; 박서연 2019), 점유형태는 자가에 거주할수록 높은 출산 의사를 보였다(천현숙 외 2016; 박서연 2019). 또한 기존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1; 송유진 2014; 이승주 외 2017; 우해봉·장인수 2019). 가구소득은 증가할수록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여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등과 같은 기회비용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정석 2007; 배정연·홍석자 2010; 서정연·김한곤 2015). 다만 일부 연구(강유진 2007; 정미라 외 2013; 정은희·최유석 2013)는 가구소득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결혼생활과 관련한 만족도나 가치관은 출산 의사와 유의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높은 부부관계 만족도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여성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7; 정은희·최유석 2013).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의 경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자녀를 일찍 낳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출산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은희·최유석 2013; 우해봉·장인수 2019; 임병인·서혜림 2021).

가계지출의 경우 교육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출 비용이 늘어날수록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이형민 2012; 염지혜 2013; 정은희·최유석 2013), 교육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의사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신윤정 2008). 주거비에 대한 부담 또한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천현숙 외(2016)는 대출상환금의 비율이 높거나, 주거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주거비 비율이 클수록 출산을 늦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박서연(2019) 역시 대출금액의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정화 외(2020)도 전월세의 보증금이나 지출대비 주거비는 출산 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여성과 배우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개인 특성, 자녀 수, 결혼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역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계지출 중 교육비와 더불어 보증금, 주택대출 등과 같은 주거비도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계지출은 교육비와 주거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편차와 출산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과 가계지출 부담과의 관계를 지역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기존 연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식료품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등 다양한 가계지출 항목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가계지출 부담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가계경제학적 측면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모형

3.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여성 관련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9,068가구,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등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자료는 2007년(1차)과 2008년(2차)만 1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3차부터는 2년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성과 배우자의 인구사회특성, 가구특성, 가족 관련 가치관, 가계지출 항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출산에 대한 의사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 모두 조사되기 시작한 2008년(2차)부터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8년(7차)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는 배광일·김경신(2012)의 기준을 적용해 출산 가능성이 크고 가장 적극적인 연령인 25세부터 39세의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는데, 응답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7,374개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313개,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5,061개이다.

종속변수는 출산 의사(Childbirth intention)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항목에 있다(1) 또는 없다(0)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본 연구의 핵심 목적과 선행연구, 저출산 원인을 바탕으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기혼여성(Married women) 특성, 배우자(Spous) 특성, 가구(Household) 특성, 만족도 및 가치관(Satisfaction and Value)과 가계지출 부담(Household expenditure burden) 등 5개 범주 25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관련 연구

에서 많이 고려되는 기혼여성과 배우자특성은 인구학적, 경제학적 원인과 관련 있는 연령, 교육 연수, 직업 유무를, 가구특성에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소득, 자녀 수를 포함하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로, 점유형태는 자가와 차가(전세, 월세)로 구분해 변수화 하였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의 총소득에 로그를 취해 사용하였으며, 자녀 수는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 자녀까지 같이 살고있는 자녀 수를 0명(무자녀), 1명(소자녀), 2명 이상(다자녀) 등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해 분석에 포함하였다(참조변수는 무자녀).

만족도 및 가치관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고, 부부의 결혼생활 또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결혼생활만족도, 가사만족도, 자녀가치관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만족도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도를 10점 척도로 표현⁵⁾하였는데, 척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사만족도는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로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녀가치관의 경우,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와 같은 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4점에 가까울수록 자녀는 필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가계지출 부담은 “귀댁의 가계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에 응답해주십시오.”의 항목에 1순위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9개(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각종 빛의 원리금 상환, 주택마련 자금을 위한 저축, 경조사비, 교통통신비, 보험료)의 지출 항목과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없음’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항목 중에서 1순위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부담 있다(1)로, 이외에 항목은 없다(0)로 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고, 없음 항목을 참조변수로 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설명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Description and unit	
Dependent	Childbirth intention	Do you have any plans to have children? (1=Yes, 0=No)	
I n d e p e n d e n t	Married women	Age	Age of women (years)
		Education	Number of years of education for women (years)
		Job	Woman job status(1=have a job, 0=no job)
	Spous	Age	Age of spouse (years)
		Education	Number of years of education for spous (years)
		Job	Spous job status (1=have a job, 0=no job)
	Household	Housing type	1=Apartment 0=Other(Multi-family, detached, etc.),
		Occupancy type	1=own, 0=Rent(Jeonse, monthly rent, etc.)
		Income	Log(Gross household income over the past year)
		Number of children	No child (Reference)
Small child	One child who lives together (1=Small child, 0=Other)		
Multi child	Two or more children living together (1=Multi child, 0=Other)		
Satisfaction and Values	Marital satisfaction	The feeling of marriage with my current husband these days (1=Very unhappy ~ 10=Very satisfied)	
	Housework satisfact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your husband shares household labor, such as washing dishes, cleaning, etc. Are you satisfied? (0 = Not satisfied at all ~ 5 = very satisfied)	
	Children Values	Children must have (1=not at all ~ 4=Very)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Food	Food expense burden	
	Medical expense	Medical expense burden	
	Educational expense	Educational expense burden	
	Housing expense	Housing expense(administrative expenses, monthly rent etc.) burden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various lights and debts) burden	
	Saving for housing purchase	Saving for housing purchase burden	
	Congratulatory expense	Congratulatory expense burde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burden	
	Insurance expense	Insurance expense burden	
None (Reference)	No burden		

3.2. 분석방법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와 마찬가지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도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경우, 프로빗(pro-

bit) 또는 로짓(logit) 함수를 활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9). 패널회귀모형의 경우 수식 (1)과 같이 2개의 오차항(u_i , e_{it})을 모형에 포함한다. u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으로 개체 간의 이질성을, e_{it} 는 시간과 개체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

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의미한다(김영준 외 2017; 성주한·김형근 2017; 이 상우 2017).

$$y^*_{it} = \alpha + \beta x + \mu_i + e_{it} \quad (1)$$

패널로지트모형(panel logit model)의 경우 오차항 u_i

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결정된다. 개별특성 효과인 u_i 와 독립변수 x_{it}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없을 경우 확률모형을 사용한다. 이는 하우스즈만(hausman) 검정을 통해 판별하게 되는데, 검정은 수식(2)와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진선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Capital region				Non-capital region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Childbirth intention		0.13	0.34	0	1	0.12	0.33	0	1
Married women	Age	35.18	3.25	22	39	34.93	3.39	22	39
	Education	13.93	1.95	6	22	13.70	1.92	0	22
	Job	0.37	0.48	0	1	0.41	0.49	0	1
Spous	Age	37.88	3.93	26	68	38.19	4.40	23	60
	Education	14.45	2.17	6	22	14.14	2.18	0	22
	Job	0.84	0.36	0	1	0.90	0.30	0	1
Household	Housing type	0.66	0.47	0	1	0.73	0.44	0	1
	Occupancy type	0.53	0.50	0	1	0.69	0.46	0	1
	Income	4,650	2,245	0	19,500	4,256	2,106	0	35,240
	Number of children	No child	0.07	0.25	0	1	0.05	0.23	0
Small child		0.20	0.40	0	1	0.18	0.38	0	1
Multi child		0.73	0.45	0	1	0.77	0.42	0	1
Satisfaction and Values	Marital satisfaction	6.80	1.78	0	10	6.81	1.67	0	10
	Housework satisfaction	3.15	1.03	1	5	3.26	0.90	1	5
	Children Values	3.11	0.78	1	4	3.08	0.74	1	4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Food	0.18	0.38	0	1	0.15	0.36	0	1
	Medical expense	0.01	0.12	0	1	0.01	0.11	0	1
	Educational expense	0.33	0.47	0	1	0.33	0.47	0	1
	Housing expense	0.04	0.18	0	1	0.06	0.24	0	1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0.23	0.42	0	1	0.16	0.37	0	1
	Saving for housing purchase	0.04	0.19	0	1	0.02	0.12	0	1
	Congratulatory expense	0.01	0.07	0	1	0.01	0.09	0	1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0.08	0.27	0	1	0.14	0.34	0	1
	Insurance expense	0.04	0.18	0	1	0.05	0.22	0	1
	None	0.05	0.22	0	1	0.07	0.26	0	1
N		2,313				5,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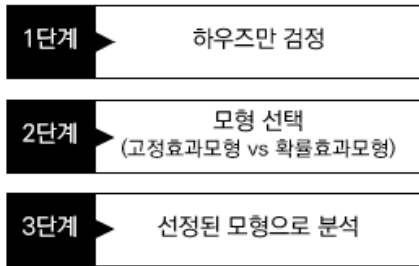


Figure 2. Analysis process Source: 성주한 외(2017)

미 외 2011; 노승현 2012; 김영준 외 2017; 민인식·최필선 2019).

$$H_0 : cov(x_{it}, u_i) = 0 \quad (2)$$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오차항인 u_i 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 불변 변수가 제외되지 않지만, 고정효과의 경우 시간 불변 변수인 개별특성 효과가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이선우 2013; 최희정 2018).

패널로지트모형에서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독립변수(x_{it})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1-p) 대비 출산 의사(p)를 가질 확률이 몇 배 증가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승산(Odds: p/1-p)을 활용하거나 추정계수인 β 를 $\text{Exp}(\beta)$ 로 변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이상우 2017). 이는 수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승산비 (Odds ratio)} &= \frac{\text{Pr}(y = 1)}{\text{Pr}(y = 0)} \quad (3) \\ &= \frac{\text{Pr}(y = \text{출산 의사 '있음'})}{\text{Pr}(y = \text{출산 의사 '없음'})} \\ &= \exp(\beta) \end{aligned}$$

4.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는 수도권 13%, 비수도권 12%가 '있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교육년수는 수도권이 각각 35.2세와 13.9년, 비수도권이 34.9세와 13.7년으로 수도권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 기간이 길었다. 직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의 37%가 있다고 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높은 41%의 여성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경우, 기혼여성과 반대로 수도권(37.9세)보다 비수도권(38.2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교육년수와 직업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더 교육 기간이 길고, 직업을 가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과 배우자 모두 교육 수준은 수도권이 높고, 경제활동은 비수도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여성이 37%(수도권)와 41%(비수도권)가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배우자는 84%(수도권)와 90%(비수도권)로 나타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에 포함되는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의 경우, 수도권은 66%가 아파트에, 53%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73%가 아파트에, 6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거주민의 아파트 및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았다. 가구의 경제력인 총소득은 수도권이 4,650만원, 비수도권이 4,256만원으로 수도권의 총소득이 더 높았다. 자녀 수의 경우, 수도권은 무자녀인 가구가 7%, 소자녀 20%, 다자녀 73%였고, 비수도권은 5%(무자녀), 18%(소자녀), 77%(다자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무자녀와 소자녀의 비중이,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인 다자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만족도 및 가치관의 경우, 지역과는 관계없이 결혼생활(수도권 6.8점, 비수도권 6.8점)과 가사(수도권 3.2점, 비수도권 3.3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수도권 3.11, 비수도권 3.08)도 지역구분 없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지출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에 대해 가장 큰 부담(33%)을 느끼고 있었으며, 원리금 상환, 식비 순으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없음)의 경우 비수도권의 비율이 7%로 5%인 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상위 3개 항목에 대해 수도권은 74%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64%로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식비, 원리금 상환,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4.2.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가계지출 부담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해 수도권 모델과 비수도권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R 검정(H_0 : 확률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결과를 통해 패널 개체 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패널로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하우즈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은 x_i 와 u_i 의 공분산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확률효과모형이, 비수도권은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 불변 변수가 제외되는데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고,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확률표집되었다는 점에서 확률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최희정 2018),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임 능력이 줄어들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서미정 2011; 이형민 2012; 정은희·최유석 2013). 또한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기존 선행연구(김정석 2007; 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송유진 2014; 이승주 외 2017) 역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비록 일부 변수의 유의성 높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구와 관련된 특성의 경우 거주지역과는 관계없이 자녀 수만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적인 출산에는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전체 변수 중 가장 높은 역승산비(1/Odds)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출산 의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족도 및 가치관의 경우, 수도권 거주 기혼여성은 자녀가치관이, 비수도권 거주 여성은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녀가치관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졌다. 기존 연구(강유진 2007; 정은희·최유성 2013; 우해봉·장인수 2019) 역시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가계지출 부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의료비와 교육

비, 원리금 상환이 유의하게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의료비 부담(1/Odds=7.22), 교육비 부담(1/Odds=3.20), 원리금 상환 부담(1/Odds=3.16)

Table 3. Random effect model result

Variable		Capital region model				Non-capital region model				
		Coef.	S.E.	Odds	1/Odds ²⁾	Coef.	S.E.	Odds	1/Odds ²⁾	
Constant		10.32***	2.20	-	-	9.57***	1.60	-	-	
Married women	Age	-0.18***	0.05	0.84	1.19	-0.27***	0.04	0.77	1.31	
	Education	0.03	0.09	1.04	0.97	0.05	0.06	1.05	0.95	
	Job	0.43	0.27	1.54	0.65	-0.22	0.19	0.81	1.24	
Spous	Age	-0.18***	0.05	0.83	1.20	-0.11***	0.03	0.90	1.12	
	Education	0.16*	0.08	1.17	0.86	0.04	0.06	1.04	0.96	
	Job	-0.06	0.31	0.94	1.07	0.82***	0.30	2.26	0.44	
Household	Housing type	-0.15	0.28	0.86	1.16	-0.17	0.21	0.84	1.19	
	Occupancy type	0.17	0.26	1.18	0.85	-0.13	0.19	0.88	1.14	
	Income	-0.14	0.16	0.87	1.15	-0.02	0.12	0.98	1.02	
	Number of children	Small child	-2.72***	0.42	0.07	15.17	-2.72***	0.34	0.07	15.19
		Multi child	-6.44***	0.65	0.00	624.98	-6.57***	0.48	0.00	716.67
Satisfaction and Values	Marital satisfaction	-0.01	0.07	0.99	1.01	0.28***	0.06	1.33	0.75	
	Housework satisfaction	0.18	0.12	1.20	0.84	0.16	0.10	1.18	0.85	
	Children Values	0.85***	0.17	2.34	0.43	0.57***	0.12	1.77	0.56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Food	-0.75	0.46	0.47	2.13	-0.96	0.32	0.38	2.61	
	Medical expense	-1.98*	1.07	0.14	7.22	-0.81	0.71	0.45	2.24	
	Educational expense	-1.16**	0.47	0.31	3.20	-1.45***	0.35	0.23	4.27	
	Housing expense	-0.04	0.65	0.96	1.05	-0.51	0.37	0.60	1.66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1.15**	0.46	0.32	3.16	-0.38	0.31	0.68	1.47	
	Saving for housing purchase	-0.09	0.63	0.91	1.10	-0.89	0.59	0.41	2.42	
	Congratulatory expense	-0.55	1.81	0.57	1.74	-0.35	0.72	0.71	1.41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0.52	0.51	0.59	1.69	-0.68**	0.31	0.51	1.97	
	Insurance expense	-0.35	0.69	0.71	1.41	-0.12	0.39	0.89	1.13	
Hausman(X2)		0.00				47.63***				
WaldChi2(23)		127.75***				252.62***				
LR-test(X2)		15.90***				51.41***				
LogLikelihood		-427.87				-891.08				

1) p<0.01(***), p<0.05(**), p<0.1(*)

2) '1/Odds' is inverse number of odds ratio, which is the probability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have childbirth compared to the probability that there is no childbirth intention. If the coefficient is negative(-), it means the probability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is not willing to have childbirth intention when it increases by one unit.

순으로 출산 의사가 감소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가계지출 부담항목 중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록 출산 의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비의 특성상 발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일시적으로 큰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강수진·서원석 2020)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비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이소영·최인선 2016)하게 되는데, 수도권에서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도권 기혼여성들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⁶⁾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수도권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히 주택가격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에서 대출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역시 대출상환금이나 주택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출산 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천현숙 외 2016; 박서연 2019).

다음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부담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교통통신비는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용이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다(김승권 2010; 신윤정·김지연 2010). 교통통신비용은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신윤정·김지연 2010) 수도권보다 교통체계가 열악한 비수도권에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부담항목은 교육비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기존 연구(신윤정 2008; 이형민 2012; 염지혜 2013)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가계지출 부담은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성격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육, 주거, 의료비와 같이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해 정책적 대안⁷⁾을 마련하고 있는 요인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비수도권은 교육비를 제외하고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은 저출산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비, 의료비, 원리금 상환이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이 중 의료비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의 경우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로 인한 대출이 출산 의사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교육비,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특히 배우자의 안정적인 경제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개선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가계 지출 부담은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임과 동시에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가계지출에 있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산 정책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초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가계지출 부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의료비나 주거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확대와 홍보를 통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금리우대 및 상환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교통통신비용이 출산 의사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통통신비 인하, 출산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교통접근성 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이 출산 정책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은 저출산 추세의 전환

을 위해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때부터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과 공교육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재화나 비용 지급, 보육 서비스 제공, 개별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휴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출산지원정책⁸⁾, 보육 인프라, 교육급여 수급⁹⁾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은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청년 고용 정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제공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턴십, 단기직 또는 무기계약직과 같은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이 아닌 안정적인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혼 가구의 안정적인 출산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 개선 프로그램, 심리상담, 부부상담 등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축자료의 한계로 출산 관련 배우자의 견, 출산과 관계되는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지표 등을 실증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출산은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역 또는 생활권 내 보육시설, 편의시설, 주거환경 등은 출산과 양육에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심층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은 작은 공간

단위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실증분석에 포함한다면 출산 제고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1.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002년 49만 5,036명,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하였다.
- 주2.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17)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주3. "대졸자 비수도권→수도권 이직하면 연봉 223만원 된다", 연합뉴스, 2018.07.12. 기사참고
- 주4. "최근 3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격차 ↑... 일자리 질도 문제", 조선에듀, 2021.03.04. 기사참고
- 주5. 결혼생활만족도는 3차조사까지는 7점 척도로 조사된 반면 4차부터는 10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2차와 3차 자료 결혼생활만족도를 10점으로 환산하였다.
- 주6. "2600만원 VS 55만원 무려 47배...산후조리원 가격 천차만별", 충청투데이, 2020.10.05. 기사참고
- 주7. 1차부터 4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 공교육 강화, 돌봄체계 마련 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임대주택 공급 등,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위해 초음파,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 감소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 주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30.)에 따르면, 20.5월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의 경우 평균 148건(출산 67건, 육아 81건), 비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70건(출산 42건, 육아 28건)으로 나타났다.
- 주9. 보건복지부의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육급여 수급 가구수는 평균 27,859가구, 수급권자는 평균 39,987명, 비수도권은 평균 8,481가구, 평균 12,344명이 지원받았다.

참고문헌

References

강수진, 서원석. 2020.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8(4):63-85.

Kang SJ, Seo WS. 2020. The Impact of Living Expenses of Low-Income Households on Mental Health by Housing Tenure Type. *Housing Studies Review*. 28(4):63-85.

강유진. 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639-653.

Kang YJ. 2007. Family-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639-653.

강현구, 심도현, 박윤현, 이순형. 2014. 지역경제적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어머니의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시데이터와 거시데이터 결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육아정책연구. 8(2): 175~208.

Kang HG, Sim DH, Paek YH, Yi SH. 2014. The Impact of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Cycle On Mothers'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A Study Combining Microscopic and Macroscopic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8(2):175~208.

김선숙, 백학영. 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129-157.

Kim SS, Baek HY. 2014. The Effects of Household's Economic Status on the Childbirth.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3):129-157.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 & Focus. 68:1-8.

Kim SG. 2010. The limitations of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and the expenditure of child support expenses by Korean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68:1-8.

김영준, 성주한, 김홍배. 2017.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자가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7(1):143-160.

Kim YJ, Sung JH, Kim HB.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and Pri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 Cadastre & Land InformatiX, 47(1):143-160.
- 김은경, 박신애. 2019. 후속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및 지역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443-454.
- Kim EK, Park SA. 2019.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s and Community on Subsequent Childbirth Plann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443-454.
- 김은정. 2016. 영아기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7:76-90.
- Kim EJ. 2016.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s. *Health and Welfare Forum*, 7:76-90.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97-116.
- Kim JS. 2007.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2):97-116.
- 노승현. 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51-82.
- Roh SH. 2012.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Factors of the Employment and Employment Types among Disabled Elderly. *Disability & Employment*, 22(3):51-82.
- 마미정. 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75-116.
- Ma MJ.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Korea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1):75-116.
- 민인식, 최필선. 201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 미디어*, p.243-256.
- Min IS, Choi PS. 2019. STATA Panel Data Analysis. *Jipil Media*, p. 243-256.
-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 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59-72.
- Park SY.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ewlyweds' Birth Plan: Focused on Newlyweds' housing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using HLM.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5(1):59-72.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 & Focus*, 293: 1-8.
- Park JS. 2015.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education costs of households with academic girl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293:1-8.
- 배광일, 김경신. 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 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3(3): 239-266.
- Bae GI, Kim KS.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s and birth policy on the wanted fertility rat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3):239-266.
- 배정연, 홍석자.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131-150.
- Bae JY, Hong SJ. 2010.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Married 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Association of 21 century Social Wealfare*, 7(1):131-150.
- 서미정. 2011.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5(1):127-148.

- Seo MJ. 2011.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Follow-up Planned Child-birth: Focused on Family with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127-148.
- 서정연, 김한근. 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8(3): 1-24.
- Seo JY, Kim HG. 2015.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Childbearing Willingness Based on Number of Children-Ever-Bor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8(3):1-24.
- 성주한, 김형근. 2017. 패널로짓분석을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부동산 학보*. 69:175-189.
- Sung JH, Kim HK. 2017. A Study on the Residential Mobility According to Tenant Household Age Using Panel Logit Model.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69:175-189.
- 성주한, 정삼석, 정상철. 2017.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수익용 부동산의 임대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259-273.
- Sung JH, Chung SS, Seong SC.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ntal Income of Real Estate for Before and After Financial Crisis Using Panel Data.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71:259-273.
- 송유진. 2014.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339-347.
- Song YJ. 2014. An Analysis of Married Women's Fertility Plans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5(3):339-347.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103-134.
- Shin YJ. 2008.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on Childbir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8(2):103-134.
- 신윤정, 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8. p.153.
- Shin YJ, Kim JY. 2010. Estimation of the Cost of Children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0-30-8. p.153
-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37. p.29-54.
- Shin YJ, Lee MJ, Jeon GH, Moon SH. 2020. Realization of fertility intention and fertility forecasti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0-37. p.29-54.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59-85.
- Shin IC. 2009. Spatial Effects of Married Women's Childbirth Plan.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2(2):59-85.
- 신혜원, 최명섭, 김의준. 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 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 연구*. 10(2):33-47.
- Shin HY, Choi MS, Kim EJ. 2009.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of Households on Additional Children in Seoul. *Seoul Studies*. 10(2):33-47.
- 양혜선, 서원석. 2020. 서울시 주택소비심리와 권역별 주택가격의 시계열적 관계분석. *지적과 국토정보*. 50(1):125-141.
- Yang HS, Seo WS. 2020. Time Series Analysis of

-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nsumer Sentiment and Regional Housing Prices in Seoul.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50(1):125-141.
- 염지혜. 2013.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5:43-63.
- Yeom JH. 2013.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Focusing on Gangnam-gu.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5:43-63.
- 우해봉, 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85-115.
- Woo HB, Chang IS. 2019. Association between Birth Plans and Subsequent Birth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Social Welfare Policy*. 46(2):85-115.
- 이다은, 서원석. 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 17(4):75-89.
- Lee DE, Seo WS. 2019.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Poverty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7(4):75-89.
- 이다은, 서원석. 2021.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2(1): 1-15.
- Lee DE, Seo WS. 2021.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Childbirth Intention. *Seoul Studies*. 22(1):1-15.
-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47-7*. p.101.
- Lee SS, Choi HJ. 2012. Analysis on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2-47-7*. p.101.
- 이상우. 2017.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7(3):191-229.
- Lee SW. 2017.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Old People: Using a Panel Logit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3):191-229.
- 이선우. 2013. 정신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0:89-101.
- Lee SW. 2013. Study of factors on the poverty of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0:89-101.
- 이소영. 2008.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2(2):15-30.
- Lee SY. 2008.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Childbirth Will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12(2):15-30.
- 이소영, 최인선. 2016.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2*. p.127.
- Lee SY, Choi IS. 2016. Policy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on Pregnancy and Delivery: The Kookmin Haengbok Card Progra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6-12*. p.127.
- 이승주, 이소민, 문승현. 2017. 부모·자녀의 이중부양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현 자녀수와 향후 출산 의사의 관계에서 노부모 동거 부양부담의 조절효과 분석. *가족과 문화*. 29(3):111-138.
- Lee SJ, Lee SM, Moon SH. 2017. The Study on the

- Effect of Double Responsibility of Elderly and Child care on the Future Childbirth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the Presence of Elderly Care Burd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hildren within Household and the future Fertility Intention. *Family and Culture*, 29(3):111-138.
- 이정화, 김건우, 최근호. 2020. 가구의 주거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패턴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2):327-336.
- Lee JH, Kim GW, Choi KH.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Housing and Socio-Economic Factors: The Pattern Analysis using Decision Tre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2):327-336.
- 이지원, 김지영, 유기윤, 양성철. 2019.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초등학교 돌봄시설의 최적입지 선정. 지적과 국토정보, 49(2):109-122.
- Lee JW, Kim JY, Yu KY, Yang SC. 2019. Optimal Location Modeling for Elementary Student's Care facility using Public Data.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9(2):109-122.
- 이형민. 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 영유아보육학, 70:1-31.
- Lee HM. 201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Birth Plan - Focused on Korean Households with Infant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0:1-31.
- 임병인,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123-140.
- Lim BI, Seo HR.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Family Values and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41(2):123-140.
-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259-277.
- Chung MR, Hong SY, Park SK. 2013.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additional childbirths of the families with one child.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259-277.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5-34.
- Jung EH, Choi YS. 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5-34.
- 진선미, 강은나, 장용석. 2011.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혼합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1(3):38-69.
- Jin SM, Kang EN, Jang YS.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Patterns: Using a mixed-eff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38-69.
- 차경욱.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23(2):137-148.
- Cha KW. 2005.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3(2):137-148.
- 전현숙.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정책 보완방안. 국토정책 Brief, 423:1-8.

- Chun HS. 2013. Housing Policy Supplement in Response to the Birth Trend. KRIHS policy brief. 423:1-8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3.
- Chun HS, Lee GJ, Kim JH. 2016. The macro- and micro-level analysis of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n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6-44-03.
- 최홍철, 유재언. 2020. 한국 가계의 잠재소비유형 변화와 결정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8(5):127-138.
- Choi HC, Yoo JE. 2020.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of life course on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127-138.
- 최희정. 2018. 전·후기 노인의 취업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노인복지연구. 73(3):113-141.
- Choi HJ.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Elderly Employment(Comparing Young-old with Old-old Age Group): A panel logit approach.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3):113-141.
-
- 2021년 08월 30일 원고접수(Received)
2021년 10월 28일 1차심사(1st Reviewed)
2021년 11월 05일 2차심사(2nd Reviewed)
2021년 11월 25일 게재확정(Accepted)

초 록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출산 의사, 가계지출, 주거부담, 저출산, 패널로짓, 수도권, 지역경제